인도네시아	5 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(정기)

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1. 인도네시아 무역부,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전자서명 도입

○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, 인도네시아 원산지 제품 대상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발행자의 서명 및 발행기관 날인에 대해 무역부 사이트에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무역부 장관령 개정안 발표

○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24호 개정안인 2020년 제39호는 '20.4.1일자로 공포 및 8일자로 시행하였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로 수출 촉진을 도모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

▲ 인도네시아 수출.입 항구

자료 : okezone(2020.04)

○ 무역부 장관은 이번 원산지 증명서 전자서명 도입제도를 통해 언택트 방법으로 수출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내 총 94개의 원산지 증명서 발행 기관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함

○ 원산지 증명서 전자서명을 도입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외 호주, 뉴질랜드, 한국, 일본 및 칠레이며, 아구스 장관은 “원산지 증명서의 발행자가 재택근무 중에도 발급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”며 “수출업체에도 발급 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”고 밝힘

* 출처 : 2020년 4월 29일, Jakarta Post

2. 코로나19 영향으로 동남아서 식품 전자상거래 확대

○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(阿里巴巴) 그룹의 자회사인 라자다(Lazada)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코로나19)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식품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

○ 알리바바 그룹의 동남아 지역 자회사인 라자다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함으로써 동남아 시장에서 식품 판매가 늘고 있다고 밝힘

○ 라자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싱가포르, 태국, 필리핀에서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료품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료품 판매 활성화가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인도네시아까지 확대됨

○ 이들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을 통해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임

○ 라자다 그룹은 코로나19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디지털 전환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이 한번 형성되면 쉽게 바뀌지 않아 전자상거래는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

○ 인도네시아 중앙은행(BI)에 따르면, 라자다를 비롯해 쇼피(Shopee), 또꼬피디아(Tokopedia), 부까라빡(Bukalapak)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 4개사의 2월 거래액은 전월 대비 0.9% 증가한 19조 3,300억 루피아(약 162백억원)로 소폭 증가

○ 인도네시아 싱크탱크경제개혁센터(CORE)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이트 거래액은 라마단(이슬람교 금식월)과 외출이 엄격히 규제되는 대규모 사회적 제약(PSBB) 시행으로 4 ~ 5월에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,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정부의 부양책이 중요하다고 밝힘

* 출처 : 2020년 5월 18일, Jakarta Post

3. 인도네시아 물류업,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50% 감소

○ 인도네시아 물류 업계는 지난 3월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(코로나19)의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매출이 50%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○ 인도네시아 물류협회(ALI)에 따르면, 물동량은 3월 초부터 60~70% 감소했으며,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제한 등 긴급 조치를 취한 것이 영향을 미침

○ 외출 자제 등으로 식품, 농산물, 의약품의 수요가 늘면서 BtoC(기업 대 개인 거래)·CtoC(개인 간 거래)는 매출이 늘었지만, BtoB(기업 간 거래)의 침체를 보완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힘. 식품, 농산물, 의약품의 물류 매출은 3월부터 2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
○ 예년에는 라마단(이슬람 금식 월) 기간 물동량이 평소보다 30~50% 증가하지만, 올해는 해고나 르바란 명절 수당(THR) 감소 등으로 구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40% 하락할 것으로 예측

○ 물류협회 관계자는 2021년 1분기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며, 물류 업체들은 사업 디지털화와 BtoC 고객 서비스 확대 등으로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

* 출처 : 2020년 5월 4일, Jakarta Post

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1.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신청 및 상담 온라인 절차 안내

○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는 코로나19 에 따라 사회적 제약(PSBB) 시행으로 장기간 식약청의 민원 창구를 폐쇄함에 따라 상담 및 서류 제출 등에 대하여 온라인과 전자메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음(4월 23일자 수정 업무부칙 의거)

○ 일반 식품 등록 및 포장 디자인 변경 신청 온라인 사이트

- https://e-reg.pom.go.id

○ 건강기능식품 및 전통의약품 등록 신청 온라인 사이트

- https://asrot.pom.go.id/asrot/
- 기존 창구 상담 업무는 penilaian_ot@pom.go.id(전통의약품), penilaian_sm_kuasi@pom.go.id(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)를 통해 상담
- 식약청 등록 업무 일반 상담은 itkonsultansi@yahoo.com와 와츠앱 채팅(0851.5634.3538)을 통해 상담
- 허가서 수령, 포장 디자인 심사 업무 및 수정사항 신고 업무는 전통의약품의 경우 penilaian_ot@pom.go.id,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의 경우 penilaian_sm_kuasi@pom.go.id 통해 상담
- 기타 문의 상담은 whatapp(WA) 0811.2333.699를 통해 상담 가능

* 출처 :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(BPOM)

2. 인도네시아 국가긴급재난청(BNPB) 긴급 통관 품목 소개

○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긴급 재난 용품에 대하여 사전 허가 대상 제품에 대하여 예외를 허용하며, 국세청에서는 관세와, 부가세, 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https://apps1.insw.go.id/perijinan/ 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

○ 대상 품목 중 건강기능 식품과 일반 가공식품 중 멀티비타민, 비타민 A, B, C를 포함한 가공식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수입을 사전 허가 없이 수입 및 유통되도록 허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

○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에서 비타민 제품에 대한 심사 평가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, 비타민이 코로나 대응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섭취를 권장 (BNPB 분류 코드 04011,040112,040113,040114)

* 출처 : 인도네시아 국가긴급재난청(BNPB)

III 통관문제사례 관련

□ Green Co. 팽이버섯 리콜 및 폐기처리

○ 유통중지 및 리콜 : 4월 16일

- 5월 11일 리스테리아균 검출 통보 및 5월 22일 최종 폐기처분

○ 판매장소 : 인도네시아 전역 대형유통매장

▲ 현지 유통업체 판매 사진

▲ 폐기처분

○ 리콜 및 폐기 사유 : Listeria monocytogenes 검출, 리스테리아는 임산부와 태아,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

○ 수입업체 : DMX(수출업체 H&P International)